

호주 국회에서 '중국공산당의 파룬궁수련생 장기생체적출'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다

[밍후이왕] 2016 년 11 월 21 일 오전, 오스트레일리아 국회에서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수련생 장기생체적출'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

각 당파에서 온 의원들과 자유당, 노동당과 녹색당을 포함한 상하원 의원들도 청문회에 참가했다. 호주 집권당 당원들은 또 유명한 국제인권 변호사인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전 캐나다 전 아태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도 초청했다.

당파를 초월한 의원들이 참석해 행동을 취하라고 건의

청문회에서 소개한 두 조사원은 자신들이 10 여 년에 걸친 조사결과 및 최신증거를 발표했다. 이는 호주 각 당파를 초월하여 모두 관심하는 문제였다.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데이비드 킬고어는 동시에 각 당파 질문에 상세한 대답을 했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실행할 수 있는

건의를 제기했으며 조치를 취해 생체장기적출을 저지시킬 것을 바랐다.

국회의원: 줄곧 파룬궁수련생과 함께 있을 수 있어 긍지를 느낀다

호주국회의원 크레이그 캘리는 말했다. "몇 년 전 국회에 들어가 일하기 전 나는 상인의 신분으로 중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나는 투숙한 호텔에서 대부분 여행수첩에 모두 서투른 영어로 파룬궁을 비방하는 전단지들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해 후 내가 파룬궁진상을 요해한 후 나는 줄곧 파룬궁수련생과 함께 있었으며 또 이것으로 자부심을 느끼며 내 노력으로 이 범죄를 저지시킬 것입니다." 캘리 의원은 마지막에 여러 당파 의원들이 공동으로 입안한 동의안이 한창 준비 중에 있다면서 내년 초 연방하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위 사진: 청문회가 끝난 후 일부 참석자들과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데이비드 킬고어는 국회 앞 잔디밭에서 호주파룬궁수련생과 사회 각 계층 인사들과 함께 모여 호주정부에 동의안을 통과시켜 중국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와 강제장기적출 죄행을 제지할 것을 호소했다

사진 뉴스

캐나다 세 도시에서 대행진 천국악단은 환영받다



매년 성탄절 전야에 파룬궁 수련생들로 구성된 토론토 천국악단은 여러 도시의 요청을 받고 성탄대 행진에 참가 하게 된다. 2016 년 11 월 19 일과 20 일 2 일간 천국악단은 요청을 받고서 토론토시, 나이아가리폭포시, 해밀턴시 등 3 개 도시의 대 행진에 참가했다. 중국인은 파룬궁대오는 어디에 가나 제일 장관이라고 칭찬했고, 사회자는 악단 연주는 광명을 가져다 준다고 칭찬했으며, 서양인은 파룬궁대오가 제일 환영 받는다고 칭찬했다. 3 차례 대행진현장에는 많은 주류매체가 현장에서 직접 생방송과 보도를 했다.

한국 텐티박스 '9일 학습반'에서 신수련생이 수혜를 받다

[밍후이왕]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텐티(天梯)박스에서 지난 9 월 28 일 제 13 회 파룬따파 9 일 학습반이 원만히 끝났다. 학습반을 마친 참가자들은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그간의 소감을 나눴다.

70 대 여성 김씨는 9 일 학습반 기간에 인(忍)을 실증한 일을 말했다. "며칠 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우 참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평소라면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해로 쇠약해진 투먼시 초야오차이 사망 (간략)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지린성 보도) 연변조선족자치주 투먼(圖們)시 파룬궁수련생 초야오차이(遲耀才)는 여러 차례 중국공산당 '610'의 악독한 경찰에게 납치, 불법 감금, 폭력적인 학대를 당했는데 박해로 간, 담, 신장, 심장, 췌장 등 여러 장기가 극도로 쇠약해졌다. 결국, 2015년 2월 11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당시 나이는 겨우 55 세였다. 이것은 장쩌민 사당(邪黨) 집단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또 하나의 유혈 증거다.

초야오차이(남, 한족, 1960년생)은 투먼시 석현 종이공장 직원으로 성격이 열성적이고 시원시원해 동료들은 '큰 형님'이라고 존칭했다.

2011년 9월 2일 오전, 지린성 투먼시 '610'은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의 경찰을 지휘해 초야오차이를 납치했다. 그들은 차량 여러 대를 몰고 초야오차이의 주택 아래층을 에워싸고 강제로 문을 열어 그를 납치하려 시도했다. 초야오차이는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경찰들은 결국 불법으로 방안에 들어닥쳐 초야오차이를 붙잡았다. 게다가 그의 집 창고 안에서 이미 훼손된 위성 안테나를 강탈했다. 그리고 다른 일부 파룬궁수련생을 불법으로 괴롭히며 NTD(新唐人)방송 위성안테나를 설치한 상황을 심문해 설치자를 박해하려고 했다.

그날 오전 10시경, 초야오차이는 시 신화변방파출소에 의해 납치됐다. 이곳 1층에는 비밀 심문실이 있는데 극히 은폐된 곳이다. 그날 취안융저 등 7명 경찰은 초야오차이를 악독하게 구타했는데 수단이 악랄했다. 그에게 '위성 접시를 설치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게 하려고 먼저 초야오차이에 대해 이른바 '발 안마'를 진행했다. '발 안마'는 바로 강제로 사람을 심문용 철제의 차위에 앉혀놓고 두 다리를 엉덩이와 동일한 수평선까지 들게 했다. 그리고 신과 양팔을 벗기고 경찰봉으로 광적으로 발등과 발바닥 등 부위를 구타하는 것이다. 초야오차이는 두 발이 부어 오르고 얼굴색이 청자색을 띠었으나 경찰이 묻는 문제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번에 혹독한 구타를 당해 그는 거의 3일 동안 정상적으로 걷지 못했고 일

주일뒤 에야 멍이 사라졌다.

그후 경찰 청(程) 모 씨는 또 플라스틱 머리띠우개로 초야오차이를 박해했는데, 5~6 회를 반복하자 초야오차이는 거의 질식했고 얼굴이 청자색을 띠었으며 한나절이 되어서야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잇달아 경찰은 또 광천수 병으로 초야오차이의 머리, 앞가슴을 구타했는데 전 과정은 광적이고 잔인했다. 초야오차이는 그것에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경찰의 어떠한 문제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투먼시 국가보안대대 부대장 저우홍(이전에 초야오차이와 서로 잘 아는 사이)은 술에 완전히 취해서 초야오차이에게 누가 그의 사진 자료를 인터넷에 폭로했는지 물었으나 초야오차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우홍은 부끄럽고 분한 나머지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붓고 광적으로 뺨을 때렸다. 아무런 효과가 없자 욕설을 하며 떠났다. 경찰 전영철은 경찰봉으로 끊임없이 초야오차이의 두 팔을 구타해 그의 팔은 일주일간 시퍼렇게 부어올랐다.

초야오차이는 시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의 경찰에게 꼬박 하루 동안 불법적인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지만 웃으면서 자료점에 관한 상황을 대답하지 않았다. 취안융저, 정원웅 등 여러명 악독한 경찰은 부끄럽고 분한 나머지 화를 내며 형벌 의자 위에 채워진 초야오차이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했다. 음험한 전용철, 정문용은 차례로 무릎으로 초야오차이의 양측 가슴 늑골부위를 단단히 받치고 끊임없이 힘을 가했다. 초야오차이는 학대로 숨을 쉴 수 없었지만, 그는 억지로 고통을 참으며 한 마디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 후 그는 여러 차례 구토했으며, 초야오차이의 간, 담, 신장, 심장, 췌장 등 여러 장기가 극히 쇠약해졌다.

9월 3일 저녁, 청 모씨, 전영철은 철제의자를 열고 또 무릎으로 초야오차이의 허벅지 양측을 받치고 광적으로 혹독한 구타를 진행했다. 1박 2일 동안 혹독하게 폭력을 가해 초야오차이는 쇼크, 허탈, 요실금 증상이 나타났다. 이번에도 무릎으로 사납게 짓눌렀던 이유로 초야오차이는 3일 동안 절뚝거렸다.

악독한 경찰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그날 저녁 10시가 넘어서 초야오차

이를 투먼시 유치장으로 보냈다.

가족은 투먼시 '610' 인원에게 초야오차이를 무슨 이유로 체포했는지 물었는데 그들은 '비밀'이라며 NTD 방송국 위성안테나와 관련되었다고 했다.

9월 14일, 15일에 초야오차이는 단식으로 박해를 반대했으며 주변 사람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 국가보안대대 악독한 경찰은 초야오차이의 입에서 파악하려 하는 정보를 조금도 얻어내지 못하자 부끄럽고 화가 난 나머지 2년 불법 노동교양 처분을 내렸고 9월 20일에 창춘시 차오양거우 노동교양소로 보냈다. 하지만 보내기 전에 신체검사에서 초야오차이의 혈압이 195에 달해 노동교양 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했다. 국가보안 악독한 경찰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광천수 병에 혈압 약을 넣었다.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이 물이 매우 쓴 느낌이 들어 국가보안경찰에게 문의했다. 그러나 악독한 경찰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얼버무렸다.

초야오차이는 결국 창춘 차오양거우 노동교양소에서 박해를 당했다. 노동교양소 3대대에 불법 감금당한 초야오차이는 2012년 1월 25일부터 2월 7일까지 줄곧 죄수복을 입지 않고 박해를 반대했다가, 3대대 악독한 경찰 대대장 가오젠후이, 교도원 류샤오위, 부대대장 장웨이, 교도관 지원취안, 판성루, 쑨 모 등 사람에게 심한 박해를 당했다. 초야오차이는 20여대의 뺨을 맞아 얼굴은 부어 올랐고 이튿날 고혈압 증상이 나타났다. 노동교양소에서는 초야오차이에게 건강검사를 하도록 강요했는데 병세가 위급하다는 진단이 내렸다. 겨우 50여세인 초야오차이가 노동교양소에서 지속적으로 고혈압(220-220) 증상이 나타났고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도 변화가 없었다. 2012년 4월 27일에 노동교양소에서 가족에게 인도돼 집으로 돌아왔을때 납치돼 고문을 당했던 이유로 초야오차이의 간, 담, 신장, 심장, 췌장 등 장기가 극도로 쇠약해졌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의 전신 피부는 황색을 띠고 눈흰자위는 누렇게 됐다. 과거에는 밥을 두 그릇 먹던 사나이였는데, 갑자기 작은 공기 한 그릇도 넘기기 어려운 허약자가 됐다.